

상대시간명사와 조사 「に」와의 공기관계

- 「昨日に」와 「今日に」를 중심으로 -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今日に」 |
| 2. 선행연구 | 4.1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今日に」 |
| 3. 「昨日に」 | 5.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판단기준 |
| 3.1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昨日に」 | 6. 마치며 |
| 3.2 부가성분으로 쓰이는 「昨日に」 | |

主題語: 상대시간명사(relational time noun), 필수성분(essential argument), 부가성분(optional argument), 「昨日に」(kino+ni), 「今日に」(kyo+ni)

1. 들어가며

(1) { *昨日に・昨日}学校へ行った。

「昨日」는 예(1)과 같이 조사「に」와는 함께 쓰이지 못하며, 조사「に」없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悩みも嫌なことも{昨日に・*昨日}残し、両手を挙げ、朝の新鮮な空気を胸いっぱいに吸う。
<Yahoo!ブログ>¹⁾

*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강사

- 1)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少納言에서 수집하였으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작례이다. 문의 용인도 판단은 저자와 일본인모국어화자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걸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예(1)은 부가성분(상황성분)으로 쓰이는 「昨日」인데 반해, 예(2)는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昨日」라는 차이이다. 지금까지 시간명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1)과 같은 부가성분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물론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昨日」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문제시되는 부가성분에 대한 연구가 절실했기 때문이겠으나, 일본어의 제현상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는 기술문법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필수성분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2절에서 「시간명사+_に」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일반적으로 조사 「_に」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대시간명사+_に」(「昨日_に」, 「今日_に」)가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예문을 조사하여, 이들이 필수성분임을 확인하고, 이들이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경우 동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보하고자 한다(3절, 4절). 5절에서는 「상대시간명사+_に」(「昨日_に」, 「今日_に」)를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으로 분류하는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李(2015)에서 밝힌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明日_に」와의 비교를 통해 시간명사가 각각 과거(「昨日」), 현재(「今日」), 미래(「明日」)를 나타내는 경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시간명사와 조사 「_に」와의 공기(共起)와 관련해서는 시간명사의 의미적인 성질에 따른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한 益岡·田窪(1992 : 74-83), 益岡(1995), 仁田(2002 : 201-258),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5-89)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5-89)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発話時とは関わりなく、絶対的に指し示す時点が決まる名詞は、基本的に、「_に」を伴う。

(3) {1時に・*1時}事務所に来てください。

発話時を基準として相対的に指し示す時点が決まる名詞は、基本的に、無助詞で用いられる。

(4) {明日・*明日に}、事務所で社長に会う。

(5) {昨日・*昨日に}、裏山で火事があった。

(6) {今・*今に}、昼ごはんを食べているところだ。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5-89)

즉,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을 <상대시간명사>, 발화시에 개의 치 않고,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이 정해져있는 명사를 <절대시간명사>라 칭하고 있다.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8)에서는 <절대시간명사>로 「1時、1日、1月、平成元年、2000年、21世紀、江戸時代、正月、春、日曜日」등, <상대시간명사>로는 「今日、明日、あさって、昨日、おととい / 今週、来週、先週 / 今月、来月、先月 / 今年、来年、去年 / 今、昔」등을 들고 있다. 일본어교육적인 견지에서의 선행연구인 市川(1997 : 241)²⁾와 國際交流基金에서 제공하는 사이트³⁾에서도 같은 관점에서의 기술이 엿보인다. 본고에서도 일단 이 기준에 따르나 <상대시간명사>와 <절대시간명사>라는 구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시간명사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대시간명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 「に」와 공기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8)에서는 무조사로도 「に」로도 자연스러운 경우에 대해 ①기준이 되는 사태, 혹은 기준시를 나타내는 명사가 시간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七日の晩{に・〇4}」, ②기간(期間)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こどものころ{に・〇}」로 제한하고 있다.

<절대시간명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岡田(1991 : 39-46)와 益岡(1995 : 149-166)를 들 수 있다. 岡田(1991 : 39-46)는 달력표현(曆的表現·본고의 절대시간명사)에 있어서의 조사 「に」의 사용 유무에 관한 요인을 열거하고, 그 요인으로 시간명사의 종류이외에 <절대시간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단독 사용과 복합 사용의 여부,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 술어동사의 어스펙트의 의미, 문중에서의 위치 등을 들었다.

또한, 益岡(1995 : 149-166)에서는 <절대시간명사>를 포함, 무조사와 「に」와의 차이에 대해 시간의 설정(「時の設定」), 시간의 특정(「時の特定」)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寺村(1992)에서 제시한 「PトキニQ」라는 표현형식과 「PトキQ」라는 표현형식에 차이에 관한 고찰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 관찰이 시간절의 표현전반에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명사+に」에 대해서는 크게 시간명사의 종류, 원래 「に」와 함께 쓰이지 않는 상대시간명사가 「に」와 함께 사용된 경우, 「상대시간명사+に」와 「상대시간명사+〇」와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가성분으로 쓰인 시간명사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필수성분으

2) 市川(1997 : 241) 「に」はある限られたトキの一点を占める働きがあるため、「今日、午後、来月、去年」のような幅でとられるトキの表現には「に」は通常使用されない。
 3) www.minnanokyozai.jp/kyozai 「今」「きのう」「きょう」「あした」などと「いつ」の後には、「に」をつけられない。「いつテニスをしますか。あしたテニスをします」
 4) 조사 「に」와 공기하지 않음을 뜻한다.

로 쓰인 「시간명사+に」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본고에서 시간명사라 칭하는 명사류를 부사류로 파악하고, 부사류의 문장성분인 부가성분이 중심이라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 듯 하다. 실제로 仁田(2002 : 201)에서도 「品詞として名詞か副詞であるか⁵⁾、さらに外的存在であるかを問わず、ここでは、広い意味で、文の表している事態の、時間的あり方に関わる成分を取り上げみていくころにする」라고 지적하며 시간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제현상을 치밀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기술문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필수성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7)은 원래라면 조사 「に」와 함께 쓰일 수 없는 상대시간명사이나 지금까지와의 선행연구와는 반대로 조사 「に」를 필요로 하고 있다.

(7) この問題は{明日に・*明日}結論をのばしましょう。

<東条英機>

이렇듯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明日に」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李(2015)⁶⁾이다. 李(2015)에서는 「延す、迫る、引きずる、持ち越す」와 같은 타동사, 「延びる、ずれこむ」와 같은 자동사, 타동사 「延期する」의 수동형인 「延期される」, 명사표현 「持ち越し」등이 술어성분으로 쓰이며, 일정한 동사들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명사와만 공기가 가능하며, 같은 동사라 하더라도 예(7-1)과 같이 과거시제와는 공기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동사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분류했다고 할 수 있다.

(7-1) この問題は{*昨日に}のばしました。

본고에서는 李(2015)에 이어, 「昨日に」「今日に」를 대상으로 이들이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3절,4절). 李(2015)에서 밝힌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明日に」와의 비교를 통해 시간명사가 각각 과거(「昨日に」), 현재(「今日に」), 미래(「明日に」)를 나타내는 경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5절에서는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판단기준을 논하고자 한다.

5) 본고에서는 시간명사로 취급하나, 품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찰할 여지가 있다.

6) 본 논문은 李(2015)에 이어지는 논문으로 같은 수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2절의 선행연구의 일부와 5절의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판단기준은 李(2015)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3. 「昨日に」

우선 <상대시간명사>중에 「昨日に」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필수성분으로 쓰인 「昨日に」

시간명사 「昨日」는 상대시간명사로서 조사 「に」와 공기하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공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2절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예문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볼 수 있다.

- (8) 僕は、刑事課へ向かった。それにしても、{昨日に・*昨日}引き続いて、ひどい混雑だ。
<踊る>
- (9) 回線、サーバ共に増強しておりましたが、{昨日に・*昨日}続き、本日もアクセスが困難
 が状況が続いています。
<Yahoo!ブログ>
- (10) 今年はそのpancakesdayが{昨日に・*昨日}当たったそうで、Hちゃんのマミ-が私たちを招待
 してくださいました。
<Yahoo!ブログ>
- (11) なぜなら、生は後戻りしないし、{昨日に・*昨日}留まることはないのだから。
<Yahoo!ブログ>
- (12) 翌日は{昨日に・*昨日}こりて、ウールづくめの猟装で出装する。
<小説>
- (13) この三連休、{昨日に・*昨日}負けないくらい、青さが透き通った。
<Yahoo!ブログ>
- (14) {昨日に・*昨日}似た今日、今日に似た昨日
<Yahoo!ブログ>
- (15) 彼はとうとう諦めてしまった。{昨日に・*昨日}比べれば道の条件ははるかに良かったが
 行く気がなく~
<五感で>
- (16) 悩みも嫌なことも{昨日に・*昨日}残し、両手を挙げ、朝の新鮮な空気を胸いっぱいに吸
 い込む。
<Yahoo!ブログ>

예(8-14)는 「昨日」가 자동사 「引き続く、続く、当たる、留まる、こりる、負ける、似る」의 필수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예로서, 조사 「に」와 공기하지 않는 경우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때의 「昨日」는 [引き続く]코ト, [続く]코ト의 시간부가성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昨日に引き続く]코ト, [昨日に続く]코ト 자체가 명제로서, 「昨日に」는 명제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15, 16)은 타동사 「比べる、残す」의 필수성분으로 쓰인 예이다. 예(15)는 타동사 「残す」의 필수성분으로, 「昨日に」를 필요로 한다. [嫌なことを残す]코ト의 시간성분이 「昨日に」가 아니라, [嫌なことを昨日に残す]코ト 자체가 하나의 명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동사는 다른 예문을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명사만을 필수성분으로 요구하지는 않는 동사들이다. 즉, 시간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 「当たる、比べる」는 다음의 예(17, 18)과 같이 시간명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립하기 때문이다

(17) 「あなたに当りましたので、特別割引|になっています」とセールスマンは契約を急がせませす。 <悪質商法>

(18) 沖縄県は全国平均に比べてモノを作る製造業を含んだ第二次産業が約一三ポイント弱下回っている。 <様々な>

「昨日に」가 시간명사전용으로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예는 수집한 예문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시간명사전용으로 필수성분을 요구하는 「明日に」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라 하겠다.

(19) この問題は{明日に・*明日}結論をのばましよう。 <東条英機>
(=예(7))

「明日に」 예(19)와 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延す、迫る、引きずる、持ち越す延びる、ずれこむ、延期する 등)와 같이 시간명사전용으로 쓰이는 현상을 보였는데 반해 「昨日に」의 경우에는 보통명사화한 경우에만 필수성분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동사의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즉 시간명사가 보통명사화된 예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引き続く」의 경우 시간명사를 필수성분으로 요구할 경우, 「前年に」「前年度に」「先月に」「前回に」「昨年」과 같은 과거시간명사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유의어로⁷⁾ 분류되는 「引き続く」와 「続く」는 시간명사를 필수성

7) 『類語大辞典』(2002 : 1332)

- ・「続く」:物事がとぎることなく同じ状態に保たれる。「この猛暑はいつまで~だろう」「陰惨な事件が~」「この番組は20年も続いている」
- ・「引き続く」:物事が途切れることなく続く。「仕事の一つ終わったと思うと、引き続いてまた次の仕事が続いてくる」「昨年に引き続き、今年も景気の回復は望み薄だ」와 같이 유의어사전상에서도 구별이 모호한 어휘라 할 수 있다.

분으로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0) 前年度に引き続き、国の直轄事業として、上記3海域において、底質浄化に係る実施設計調査が行われる。 <観光白書>
- (21) こんろが去年に引き続き、出火原因の第1位となっている。 <消防白書>
- (22) * 明日に引き続き、酷い混雑が予想される。

그러나, 「続く」의 경우 시간명사를 필수성분으로 취할 경우, 「引き続く」와 달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명사와도 공기가능하다.

- (23) 昨日に続き、今日もお昼はスクールです。 <Yahoo!ブログ>
- (24) 明日に続きます。

이상, 「昨日に」가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예문을 살펴보았다. 「昨日」는 시간명사전용으로는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예는 찾을 수 없었지만, 보통명사화하여, 자동사「引き続く、続く、当たる、留まる、こりる、負ける、似る」, 타동사「比べる、残す」의 필수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의어 관계에 있는 동사 「引き続く」와 「続く」는 시간명사로 어떠한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올 수 있느냐에 따라 분류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혔다⁸⁾.

3.2 부가성분으로 쓰인 「昨日に」

3.1절에서 살펴본 필수성분으로 쓰인 「昨日に」와 달리, 다음과 같이 부가성분으로 쓰인 「昨日に」의 예들도 볼 수 있다. 益岡・田窪(1992 : 74-83), 益岡(1995), 仁田(2002 : 201-258),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5-89)등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대시간명사>인 「昨日」는 조사 「に」와 공기하지 않는 경우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조사 「に」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 (25) {昨日に・昨日}, 私の商品が落札されました。 <Yahoo!知恵袋>
- (26) いよいよ出てきました。{昨日に・昨日}準備した手紙&封筒。 <Yahoo!ブログ>
- (27) {昨日に・昨日}「来週遊ぼう」と言っていたのですが、用事が思ったより早く終わったため、遊べることに。 <Yahoo!知恵袋>

8) 「昨日になって」「昨日に増しての」「昨日について」「昨日に限って」「一昨日から昨日にかけて」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28) {昨日に・昨日}梅雨明け宣言されたみたいで、エアコンの売り上げがすごかったようだ。
 <Yahoo!ブログ>
- (29) 本日のこの下げで、{昨日に・昨日}大幅上昇した分は全て吐き出し、先週末の安値とほぼ同値ぐらいまで下げています。
 <Yahoo!ブログ>

위 예문들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부가성분으로 쓰인 시간명사를 주요대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상대시간명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に」와 공기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8)에서 무조사로도 「に」로도 자연스러운 경우에 대해 ①기준이 되는 사태, 혹은 기준시를 나타내는 명사가 시간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七日の晩{に・〇}」, ②기간(期間)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こどものころ{に・〇}」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위의 예들은 기준시를 나타내는 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기간을 나타내는 예라고도 할 수 없다.

즉, 선행연구에서의 지적과는 다른 경우라도 충분히 치환이 가능한 예문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치환이 가능하다면,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4. 「今日に」

다음으로 <상대시간명사> 「今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필수성분으로 쓰인 「今日に」⁹⁾

「今日」¹⁰⁾역시 「昨日」와 마찬가지로, <상대시간명사>로서 조사「に」와 공기하는 않는 것이

9) 「昨日に」와 마찬가지로 「今日」도 「昨日から今日にかけて」「今日に限って」、「今日において」、「昨日や今日にはじまったことではない」등과 같은 표현은 대상외로 했다. 또한 구성상 [4.2 부가성분으로 쓰인「今日に」]를 넣는 것이 타당하나, 수집된 예문이 숫적으로 적어, 이 부분은 할애하였다. 부가성분으로 쓰인 예는 다음을 들 수 있다.

・注文は{今日に・今日}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が, さっき注文しようとしたら, もう完売・
 <Yahoo!ブログ>

10) 「きょう」「今日」로 검색. 「今日(こんにち)」의 경우는 다음의 설명대로 「現代」라는 뜻도 있으므로, 「現代」로 치환되는 경우는 대상 외로 하였음.

る、備える」는 과거의 때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는 공기불가함을 알 수 있었다.

(37) {昨日に・*明日に}至りました。

(38) {明日に・*昨日に}繰り上がりました / 持ち越しになりました / 備えました。

5.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판단기준

우선, 일본어의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분류기준을 들어, 실제로 위의 예문들이 필수성분 테스트를 통과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테스트프레임으로는 仁田를 사용하고자 한다. 仁田(1993 : 4-11)는 「공연성분(共演成分)¹¹⁾과 비공연성분(非共演成分)(付加成分)의 판정기준으로 [1] 주제화(主題化) [2] 연체수식절의 주어화(連体修飾節の主要語化) [3] 분열문의 초점부화(分裂文の焦点部化) [4] 부가와 삭제 제약¹²⁾ 이라는 테스트 수단을 들고 있다.

(39) [憲二ガ洋子ヲ叱ツタ] コト ← 洋子ハ憲二ガ叱ツタ。

(40) [憲二ガ洋子ヲ激シイ言葉デ叱ツタ] コト ← *激シイ言葉ハ憲二ガ洋子ヲ叱ツタ。

(39-1) 憲二ガ叱ツタ洋子

(40-1) ??憲二ガ洋子ヲ叱ツタ激シイ言葉

(39-2) 憲二ガ叱ツタノハ洋子ダ。

(40-2) ??憲二ガ洋子ヲ叱ツタノハ激シイ言葉ダ。

(이상은 仁田의 예를 간략화한 것임.)

각각을 통과한 예문은 공연성분으로, 통과하지 못한 예문은 부가성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仁田(1993 : 6-7)는 「운동(動き)의 성립시를 나타내는 <시간 상황성분>은 사태가 그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경우 공연성분이 아니라 부가성분이지만 [3月3日ハA大学ガ合格発表ヲ行ツタ] → [3月3日ニA大学ガ合格発表ヲ行ツタ]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통해 이들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지적하였다. 즉,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성분은 닛타의 판정기준과는 반대의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11) 본고에서의 필수성분을 지칭함.

12) 이 제약은 「實際さほど効力を發揮しない(p.7)」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대상외로 함.

이 지적을 토대로 검증을 해보면 부가성분인 「昨日に」「今日に」는 위 기제를 통과할 수 있으나, 필수성분인 「昨日に」「今日に」는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昨日に」의 부가성분의 예로는「昨日に、私の商品が落札されました」를, 필수성분의 예로는「悩みも嫌なことも昨日に残し、両手を挙げ、朝の新鮮な空気を胸いっぱい吸い込む」를 대상으로 하고, 「今日に」의 부가성분의 예로는「注文は今日に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が、さっき注文しようとしたら、もう完売」를, 필수성분의 예로는「昨日の武田勝選手の負傷を受け、先発が今日に繰り上がった」를 예로 들어, 각각의 기제를 통과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화>

- (41) [*昨日は悩みも嫌なことも残す] ← 悩みも嫌なことも昨日に残し、～
- (42) [昨日は私の商品が落札された] ← 昨日に私の商品が落札されました。
- (43) [*今日は先発が繰上がった] ← 先発が今日に繰上がった
- (44) [今日は注文をしようと思ってた] ← 注文は今日に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が～

<주제화>에 관해서는 예상대로, 필수성분으로 쓰인 「昨日に」「今日に」각각의 예문인 (41) (43)는 주제화가 되지 않으나, 부가성분으로 쓰인 예(42) (44)는 주제화가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연체수식절의 주요어화>에 있어서도 필수성분인 「昨日に」「今日に」는 (41-1) (43-1)과 같이 비문이 되나, 부가성분으로 쓰인 「昨日に」「今日に」의 경우는 예(42-1) (44-1)과 같이 성립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연체수식절의 주요어화>

- (41-1) ??悩みも嫌なことも残す昨日
- (42-1) 私の商品が落札された昨日
- (43-1) ??先発が繰上がった今日
- (44-1) 注文をしようと思ってた今日

다음으로 <분열문의 초점화>가능여부를 살펴보면, 이 또한 예상대로 필수성분인 「昨日に」「今日に」는 분열문의 초점이 되면 원래 문장과 의미가 바뀌는 반면, 부가성분의 「昨日に」「今日に」의 경우는 예(42-2)(44-2)와 같이 의미 변화없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분열문의 초점화>

- (41-2) #13)悩みも嫌なことも残すのは昨日だ。

(42-2) 私の商品が落札されたのは昨日だ。

(43-2) #先発が繰上がったのは今日だ。

(44-2) 注文をしようと思ったのは今日だ。

이상, <주제화> <연체수식절의 주요어화><분열문의 초점부화>라는 테스트를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테스트기제를 통과한 경우는 부가성분인 「昨日に」「今日に」이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필수성분인 「昨日に」「今日に」임을 알 수 있었다.

6. 마치며

이상,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상대시간명사> 중에 「昨日に」「今日に」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 연구에서 부가성분의 하나로만 다루어져 왔던 「昨日に」「今日に」가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明日に」와 같이 다양한 동사의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明日に」와 마찬가지로, 「昨日に」「今日に」도 일정한 동사와 함께 쓰여 필수성분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昨日に」「今日に」는 반드시 조사 「に」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조사 「に」가 없이도 성립가능한 경우는 부가성분으로 쓰인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부가성분으로 쓰인 경우는 어느 명제가 발생하는 시간성분인 반면에, 필수성분으로 쓰인 「昨日に」「今日に」는 어느 명제가 성립하는 시간성분이 아니라, 그 명제내의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판정기준으로는 닷타(1993)에 따라, <주제화> <연체수식절의 주요어화><분열문의 초점부화>를 채용하였다.

앞으로는 부가성분으로 쓰이는 「상대시간명사+に」(「昨日に」「今日に」「明日に」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に」의 사용여부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益岡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예문을 수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3) #는 성립가능한 문이나, 원래와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參考文獻】

李廷玉(2015)「必須成分としての「相對時間名詞+ニ」-「明日に」を中心に-」『日本語教育』第74輯、韓国日本語教育学会、pp.91-102

市川保子(1997)『日本語誤用例文小辞典』凡人社、pp.236-242

岡田雅彦(1991)「時間名詞の一側面「ニ」をとるばあいととらないばあいについて」『国語研究』横浜国立大学国語国文学会、pp.39-46

奥田靖雄(1983)『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むぎ書房、pp.281-324

木村英樹(1983)「時点表現の副詞的用法について」『日本語教育』52号、日本語教育学会、pp.65-78

柴田武・山田進 編(2002)『類義語大事典』講談社

寺村秀夫(1992)「時間的限定の意味と文法的機能」『寺村秀夫論文集1』くろしお出版、pp.127-156

仁田義雄(1993)「日本語の格を求めて」『日本語の格をめぐって』くろしお出版、pp.1-38

_____ (2002)「第7章 時間関係の副詞とその周辺」『副詞的表現の諸相』くろしお出版、pp.201-258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現代日本語文法2』くろしお出版、pp.85-89

益岡隆志(1995)「時の特定、時の設定」仁田義雄(編)『複}文の研究(上)』くろしお出版、pp.149-166

益岡隆志・田窪行則(1992)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pp.74-83

【用例出典】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yahoo검색

논문투고일 :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6년 07월 29일
 2차 수정일 : 2016년 08월 0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8월 15일

<要旨>

상대시간명사와 조사 「に」와의 공기관계

- 「昨日に」와 「今日に」를 중심으로 -

이정옥

본 논문은 일본어의 <상대시간명사> 중에 「昨日に」「今日に」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부가성분의 하나로만 다루어져 왔던 「昨日に」「今日に」가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明日に」와 같이 다양한 동사의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明日に」와 마찬가지로, 「昨日に」「今日に」도 일정한 동사와 함께 쓰여 필수성분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昨日に」「今日に」는 반드시 조사 「に」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조사 「に」가 없이도 성립가능한 경우는 부가성분으로 쓰인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부가성분으로 쓰인 경우는 어느 명제가 발생하는 시간성분인 반면에, 필수성분으로 쓰인 「昨日に」「今日に」는 어느 명제가 성립하는 시간성분이 아니라, 그 명제내의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필수성분과 부가성분의 판정기준으로는 닛타(1993)에 따라, <주제화> <연체수식절의 주요어화><분열문의 초점부화>를 채용하였다.

앞으로는 부가성분으로 쓰이는 「상대시간명사+に」(「昨日に」「今日に」「明日に」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に」의 사용여부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益岡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예문을 수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The co-occurrence of ni and relational time noun

- On the focusing 'kino+ni' and 'kyo+ni' -

Lee, Jung-Og

In this paper I studied 'relational Time Noun+ ni' as a essential argument on the focusing 'kino+ni' and 'kyo+ni' and I made it clear 'kino+ni' and 'kyo+ni' which is <relative time noun> exist as a essential argument .

It was ordinary that 'kino+ni' and 'kyo+ni' is not involved as a essential argument by the preceding study, but I assumed that it was possible to involve a 'kino+ni' and 'kyo+ni' as a essential argument by a case. 'relational Time Noun' is requested of as a essential argument as like 'kino+ni' and 'kyo+ni'